일자리 창출 '민간업체 떠넘기기'

유성엽 의원, 기재위 국감서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산업현장 현실 · 특성 고려하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 · 고창 · 사진)이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는 고용지표에 대해 민간업체에게 떠넘기기식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를 늘려보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80.4%, 2017년 78.5%, 2018년 77.8%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저가낙찰제 시기 수준인 75%에 근접해 가며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적되었던 변별력 없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항목 중 사회적책임 가점을 당초 1점에서 2점으로 확대 · 변경했다.

특히, 사회적책임 세부항목 중 건설인력고용 가점을 0.2점에서 0.6점으로 3배나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잘못된 평가기준을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안 그래도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더 큰 짐을 지어주는 격이다."며, "저가낙찰로 인해 발생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현 경제상황에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저가낙찰은 저가하도급과 그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하도급업체 부도와 함께 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일자리는 점점 살아져 갈 수 밖에 없다."고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를 개정 추진 중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일자리창출 평가항목을 신인도에 추가하고 높은 수준의 배점(최대 5점)을 부여, 적격심사는 일자리창출 우수 업체에 가산점 부여,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인력 고용 평가항목을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하고 0.6점에서 최대1.5점으로 배점을 대폭 확대한다는 안이다.

유 의원은 "SOC예산은 지난해 14%나 줄이고, 내년에도 2.3%를 줄여 SOC 인프라 투자 축소 등 건설투자는 감소해 가는데,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산업현장의 현실과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주를 한 뒤 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을 채용하는게 맞는건지, 반대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만 수주를 하게 해주는게 맞는건지"라고 물으며,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중소기업 등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는 제도를 관련기관으로서 조달청이 책임의식을 갖고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지방의원 의정 보좌
사무처 직원 전문성 강화

전북도의회는 11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대 신환철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 교수는 "분권시대 지방의회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은 물론 이들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도 전문성 강화와 직무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시대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와 단체장 중심의 권력집중이 되레 강화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의회 차원의 전문 인력확보 한계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집행부 관여 등도 의원들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한 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이나 행정 관료들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할 때 양 기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는 얘기는 북유럽의 정치지도자의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며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이달의 시내버스 친절기사 전주시는 11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중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와 서비스 개선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온 10명의 친절기사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익산-남원 공용터미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11일부터 13일까지 익산과 남원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문화가 있는 Week'를 맞이, ART workshop, ART showbox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공간 조성 후 첫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Art workshop-터미널에서 만나는 지역아티스트와의 새로운 예술적 경험'이라는 주제로 문화 · 예술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 문화터미널에서는 마블링 네일아트, 드립캐쳐 공예, 플라워클래스활용 아트워크숍을 운영하며, 남원 문화터미널에서는 민화 손거울 그리기, 자수브로치 공예, 시화 엽서 및 책갈피 제작 등을 활용한 아트워크숍을 경험 할 수 있다.

특히, 익산 문화터미널에서는 12일 'Art Show Box'라는 주제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마술과 탭댄스 공연이 진행 될 예정이며, 남원 문화터미널에서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마술 및 국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포토존 이벤트 및 SNS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상시 진행된다.

이병천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전북의 지역민과 터미널 이용객이 지역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공연을 마련해 일상으로 스며드는 문화환경 조성에 문화터미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

기억에 남는 전국체전 되길

전북도-익산시, 참가 선수단 환영식

11일 제99회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에 대한 환영식이 익산시 보석박물관 칠선녀 광장에서 개최됐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개최한 이날 환영식은 전라북도 선수단을 제외한 16개 시 · 도 선수 · 임원단의 전북도 및 익산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모든 선수단이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한 행사였다.

특히 풍물단을 포함한 150여명의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흥이 넘치는 풍물공연과 열렬한 환호성으로 선수단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철웅 익산시 부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익산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고 모든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후회 없이 발휘하여 모든 선수가 기억에 남는 체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국승원 세무과장은 "체전 기간 동안 모든 방문객들이 멋과 맛과 사랑과 전통의 도시 익산을 즐기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선수단이 포함된 첫 번째 행사인 이번 환영식을 시작으로 전야제, 개회식 등 전국체전이라는 축제의 장으로 들어섰다. /익산=우병희 기자

SNS도 통한 '천년 전북'의 매력

대한민국 SNS 대상 7년 연속 수상…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

천년의 역사를 품은 전라북도의 매력이 SNS에서도 통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 제정 이래 7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며 온라인 홍보 강자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전북도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헤럴드경제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2012년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2013~2014년 공공부문 종합대상, 2015년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2016년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 2017년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7년 연속 수상한 지자체는 전국 243개 광역 · 기초 지자체 중 전북도가 유일하다.

SNS대상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의 운영 내용을 종합 평가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개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정량평가와 전문가 및 내부 기관평가, 사용자 평가를 종합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2009년 블로그 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 트위터와 페이스북, 2015년에는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페이스북 팬수는 17만6,000명을 돌파하는 등 '최애(최고로 애정하는)' 페이지로 입소문이 났으며, 블로그 역시 누적방문자 950만 명을 기록하며 전국 블로그 가운데 상위 0.01%(블로그차트 기준) 수준의 최우수블로그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SNS가 상향평준화된 상황에서도 감각적이고 친근한 콘텐츠로 전라북도의 매력을 알려왔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1000리길, 새만금잼버리 등 전라북도 도정 · 역사 · 문화 · 관광 소식을 웹툰과 ASMR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달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북도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홍보도 세분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고객과 소셜미디어 이용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천년 전북의 매력을 보다 더 친근하게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